

중국, 일본산 수산물 거부 움직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발 수산업자들 생굴 등 수입 포기 누리꾼들 "일본 해산물 안 먹겠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하자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이 극심하며 중국 일부 수산업자들은 일본산 생굴 수입을 포기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봉황망은 이번 사태가 중국 내 일본 요릿집이나

해산물 식당, 수산 상가 등의 구매 동선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충칭시의 생태농업개발회사 책임자인 왕 모씨는 최근 일본산 생굴 수입을 추진했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소식을 듣고 구매를 포기했다. 이 업체는 충칭의 주요 대형 슈퍼마켓에 주로 해산물을 포함해 육류 등을 공급하는 곳이다. 왕씨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면 앞으로는 일본산 해산물을 절대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산물은 대부분 베트남, 태국, 에콰도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산 수입은 많지 않고 그나마 주로 참치"라면서 "일본의 이번 오염수 방출 결정이 중국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요릿집 또한 일본산이 아닌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한 일본 요릿집 사장은 "식당 내 연어는 모두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것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연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베이징 차오양구의 일본요릿집 관계자는 "현재 참치를 제외한 나머지 식자재는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구매 동선을 어느 국가로 바꿀지는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누리꾼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놓고 "다시는 일본 해산물 안 먹는다", "앞으로 생선에 수질검사 보고서를 첨가해야 하나", "일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화산재 내뿜는 카리브해 수프리에르 화산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 가장 큰 섬인 세인트빈센트섬의 수프리에르 화산이 13일(현지시간) 화산재를 내뿜고 있다. 이 화산은 지난 9일 42년 만에 폭발했으며 화산재는 6km 높이가 지 치솟아 섬 마을을 잿빛으로 뒤덮었다. /연합뉴스



1년 만에 대면수업 재개한 미 LA 초등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3일(현지시간) 학생들이 교사 지도하에 수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LA의 일부 학교는 1년 넘게 문을 닫았다가 이 날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BTS 소재로 '인종차별 코미디' 못매 맞은 칠레방송 결국 사과

"인종차별은 코미디 아냐" 비판

칠레의 한 TV 코미디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소재로 인종차별성 코미디를 했다가 국내외의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칠레 공중파 채널인 메가TV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사 코미디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마음 상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메가TV는 "어떤 커뮤니티도 모욕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계속 개선하고 배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지난 10일 방송된 메가TV의 코미디쇼 '미 바리오'(Mi Barrio) 중 한 코너였다. 토크쇼에 5명으로 이뤄진 보이밴드가 출연한 설정이었다. 진행자가 소개를 부탁하자 한 멤버가 '김정은'이라고 답하고 이어 나머지 멤버들이 '김정-도스'(Dos:스페인어로 숫자2), '김정-트레스'(Tres:3), '김정-콰트로'(Cuatro:4), '후

안 카를로스'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의 영어 표기 중 '은'(Un)이 '1'을 뜻하는 스페인어와 같다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진행자가 진짜 이름이 뭐냐고 재차 묻자 이들은 차례로 뷔, 정국, 아구스트D, 제이홉, 진이라고 말하며 BTS를 패러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자 멤버 중 한 명만 할 수 있다고 답했고,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어 억양과 비슷한 의미 없는 말들을 길게 늘어났다. 방송이 공개된 후 칠레의 BTS 팬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팬들이 아닌 이들도 아시아계를 부적절하게 희화화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인종차별은 코미디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향한 비판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칠레의 BTS 팬 '아미'는 칠레 방송규제 당국인 국가TV위원회(CNTV)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1천 건 넘는 민원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

유럽 국립박물관 중 처음 위안부 피해와 해결 노력 소개

독일 국립박물관에 처음으로 소녀상이 전시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시민사회의 해결 노력이 유럽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공'으로 불리는 특별 전시관에서 '말문이 막히다 - 큰 소리의 침묵'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인종학살, 민족말살, 폭력, 전쟁범죄 경험에 대한 침묵 깨기를 기억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함께 공감을 바탕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나치 치하 드레스덴에서 유대인 학살, 나미비아에서 독일제국의 20세기 최초 민족 말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유고슬라비아 전쟁범죄, 호주 원주민 카우르나족의 몰수 피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첫 공개증언 이후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소개된다.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 모습을 형상화한 소녀상은 전시장 안팎에 침묵 깨기의 상징으로 설치된다. 전시장 밖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청동 재질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 내부에는 이동식 소녀상이 각각 설치된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선 1년 기한으

로 전시장에 머물 예정이다. 독일 내에서는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되는 소녀상이다. 전시회에서는 또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한 첫 공개증언 영상이 상영된다. 이를 시작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천500 차례에 가깝게 열린 수요 시위와 베를린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국제 연대활동 등이 영상과 지도, 그래픽 형태로 소개된다. 강덕경, 김순덕 할머니 등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과 필리핀인 위안부 피해자인 리 메디아스는 14세이던 1942년 필리핀을 침공한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된 뒤 겪은 고초와 목격담을 전에 수놓았다. /연합뉴스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호 수질 오염 직면

녹은 눈에 폐기물 저장소 범람 위기 이르쿠츠크주 정부 비상사태 선포

러시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로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 불리는 바이칼호가 대규모 수질오염의 위험에 직면했다. 14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르쿠츠크주(州)는 최근 바이칼호 주변인 바이칼스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겨우내 내렸다가 날씨가 풀리며 녹은 눈이 바이칼호 주변 폐공장의 폐기물 저장소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이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예년보다 2~3배 많은 양이었다. 녹은 눈이 계

속 저장소로 흘러 들어가 범람할 경우 바이칼호로 폐기물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정부는 밝혔다. 이고르 코브제프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저장소로 녹은 눈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 연못 등의 형태인 저장소에는 2013년 문을 닫은 펄프 및 종이 생산 공장이 과거 사용했던 고체-액체 폐기물 650만t이 축적돼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저장소가 바이칼호 수질에 현재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폐수가 호수로 유입되는 곳에서의 유해 물질 최대 허용 농도가 10~3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과학자를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